

Wycliffe **NEW SPIRIT**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이곳에 정착을 한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IT Administrator로 100여대에 달하는 여러가지 용도의 Computer를 책임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며, 또한 6학년과 7학년 학생들에게 Computer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곳 학교에서 K부터 12학년까지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세계 각국에서 파송된 다양한 선교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부분이 선교사의 자녀들로 일반적으로 이들을 MK (Missionary Ki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의 45% 정도가 한국 학생인데, 아쉽게도 한국인 선생은 저희 부부외에 다른 한분만이 더 계시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을 위한 Program은 이제야 개발 중입니다.

비록 독특한 환경 가운데 이들이 생활하고 있지만, 부족함이 없이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계 수치에 의하면, 선교사 자녀들이 장성해서 부모와 같은 선교사로 헌신하는 비율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매일 만나는 이곳 학생들이 지금은 잘 구별이 되지 않는 평범한 장난꾸러기들 이지만, 언젠가는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훌륭한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을 생각하면 이들 하나 하나가 너무도 귀하게 보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심히 부족한 저희들이 이 막중한 책임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12)

아직도 많이 답답하지만 지금까지 전혀 접할 수 없었던 독특한 이곳만의 언어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으며,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의 유력한 자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많이 만나게 해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가진 재산이나, 학력, 직업등으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가능해 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는 특별히 사용하는 언어로써 그 구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영어와 표준어를 사용하는 극소수의 중/상층(?), 그리고 현지 지방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하층으로 구별이 됩니다. 이곳의 몇 안되는 교회에서도 이러한 언어로 구

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어로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언어에 대한 열등감과 위축감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지어만을 말 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말과 동일하고,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 부모들도 자식만큼은 꼭 영어로 교육 시키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두터운 언어의 경계를 넘지 못하고 부모의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 세계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제가 머물고 있는 이 곳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상 기후의 영향도 이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와 강을 접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서, 과연 이곳이 섬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치안도 많이 불안하여 곳곳마다 총을 들고 경비하는 곳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곳이라고 하지만, 공공 장소는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가게에도 총을 들고 경비를 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은 많이 위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곳에서도 자라나는 2세대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정말 필요하고, 유효하고, 또한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과 더불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모슬렘과 변형된 카톨릭이 우세한 이곳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기도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답한 현실로는 암울한 미래 밖에 상상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곳 아이들의 미소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의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이 부분을 특별히 강하게 보여 주고 계셔서, 이 일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과 믿는 자를 아무리 흔들지라도 우리가 애 써야 할 것은 복음 전파 뿐인줄 믿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기도 하실 때마다, 이 곳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호)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 yeonji_park@wycliffe.org

이곳 민다나오에서 첫 아침을 맞이하던 날, 소란스러운 소리 때문에 단잠에서 일어 나아만 했다. 새벽 4시쯤부터인가 온 동네 닭들이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하는데, 비명 소리인지, 통곡 소리인지, 아니면 녹슨 쇠를 깔는 소리인지 도저히 가능하기 어려운 음색으로 쉬지 않고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것이었다. 이곳에 오기 전에 남편으로부터 이곳의 닭 울음 소리가 무척 독특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무척 시골스러운 곳 이구나 하고 가볍게 넘긴 일이 생각났다. 그러나 막상 소리를 경험 하고 보니, 세상에 이러한 곳이 있는 있는가 할 정도로 새로운 세상에 왔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곳 민다나오 섬은 ‘싸움 닭 (투계)’ 로 유명하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적지 않은 가정에서 많은 수의 투계를 키우는데, 닭 싸움에 내 보내기 위해 특별한 사료와 약까지 먹일 정도로 정성을 기울인다고 한다. 이렇게 강하게 키우는 닭이다 보니, 이들에게서 나오는 소리는 ‘꼬끼오’ 하는 정다운 소리가 아니라, 거의 포효에 가까운 예사롭지 않은 소리가 나는 것 같다. 거의 한 달 이상을 닭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쳐야만 했다. 그러나 요즘 이상하게도 닭 소리에 전혀 관계없이 잠을 잘 자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닭들은 변함없이 괴성을 지르고 있는데, 전혀 긴장감이나 이상함이 없는 단순히 지나가는 소리로 더 이상 나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생각이 난다. 저녁에 옆방에 아이들을 재우고 내 방에 돌아와 누워도, 모든 신경과 관심은 아이들에게 있었다. 조금만 뒤척이는 소리에도 잠이 깨었는데, 남편은 아이들이 자다가 울어도 전혀 못 듣고 잘 잤던 것을 기억한다. 반면 아침에 컷 전에 울리는 알람 시계 소리는 상황이 달랐다. 남편은 알람 시계 소리에 단 1초도 참지 못하고 바로 일어 나는데, 나는 고요하게 잘 잔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점을 흥미롭게 생각했는데, 아마도 나의 신경과 관심이 집중된 곳에 더욱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까닭일 것이다. 아이들을 돌 보는 것이 가장 큰 일로 생각한 나와 직장 생활을 하며 항상 시

간을 영두에 두고 산 남편의 차이인 것이다. 내가 무슨 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한 관심을 갖고 어디에 주파수를 맞추는가에 따라 알게 모르게 반응하는 것이다.

아직 이곳 지리에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와 주 안에서 교제하는 현지인을 만나고자 주소만 들고 그 집을 찾아 나선 적이 있다. 그 집이 위치한 지역은 이곳에서도 무척 어려운 주민들이 사는 곳이었었는데, 그 동네에 걸어 들어 가면서부터 남편과 나는 서로 긴장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방인을 향한 그 곳 주민들의 시선이 너무 차갑고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바로 며칠전에도 해변에 위치한 교회를 찾아갈 기회가 있었다. 푸른 바다에 생선이 풍성한 낭만적인 어촌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가장 어려운 주민들이 사는 작은 어촌과 같은 곳이어서 주변 환경은 더욱 더 험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부부만이 마을로 들어 간 것이 아니라, 우리와 잘 아는 그 교회 교인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상황은 많이 달라서 만나는 그 곳 주민들에게 인사를 할 정도로 여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만약 우리 부부만 이곳을 처음 방문 하였다면, 입구에서부터 많이 망설였음이 분명하다. 단순히 이곳을 잘 아는 현지 부부와 함께 동행했다는 이유로 편안한 마음으로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 온 것이다.

나의 삶의 주파수가 어디에 맞추어져 있고, 또한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가를 돌아본다. 나의 삶이 듣지 않아도 될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목하지 않아도 될 일에 낭비 하지는 않는지 살펴 볼 일이다. 이 곳 닭 소리와 같이 요란한 세상을 살면서, 또한 험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마음이 움츠려 들기 쉬운 새로운 환경을 지나면서,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이연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27:8)

Prayer Request

-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 기도의 동역자와 후원자들이 채워지도록
- 흠어져 있는 두 아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도록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성경 번역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하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